

발리식 무대 예술, 메판티간

# When Worlds Collide

다양한 문화의 보고(寶庫) 발리에 최근 새로운 장르가 추가됐다. 태권도, 카포에이라, 그림자 인형극, 진흙레슬링이 어우러진 메판티간이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Taekwondo, capoeira, shadow shows and lashings of mud. It can only be Mepantigan, the latest addition to Bali's cultural riches, and one of its most intriguing.**

최근 인기 높은 문화 상품으로 떠오른 발리 무술 '메판티간'은 직역하자면 '땅으로 내던져'란 뜻이다. 지금은 발리 전역에서 공연하고 있지만, 메판티간의 진수를 감상하려면 우붓 마을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그린 스쿨로 가야 한다. 푸투 윗센 위드지아가 개발한 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은 유도, 태권도,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한국의 호신술, 발리의 민속 설화, 그림자 인형극, 진흙 레슬링을 결합한 것이다. 사실 발리는 이미 표현 방식이 다양한 예술 문화가 가득하다. 여기에 전직 태권도 챔피언이었던 푸투 윗센이 새롭고 매력적인 문화 장르를 또 하나 탄생시켰다. 그는 "인간, 신, 자연, 이렇게 세 가지의 조화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었다"고 한다. 초기의 메판티간은 무용수들이 온몸에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해변에서 레슬링을 벌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일이 미끄러워 상대방을 내던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덜 미끄러운 진흙으로 바꿨다"고 한다. 무용수들은 진흙 구멍이를 무대 삼아 순식간에 진흙 범벅이 되어 열띤 대결을 펼친다. 푸투 윗센은 이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이는 메판티간을 가르치는 그린 스쿨의 핵심적인 교육 철학이다. 학교 건물도 대나무와 진흙만으로 지었다. 발리 전통 협주곡인 가물란 연주가 점점 고조되면, 무용수들은 입 안에 불 방망이를 넣으며 묘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임시로 쳐 놓은 인형극 막 뒤에서 그림자 인형들처럼 현란하게 춤을 추다가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 상대방을 메다꽂는다. [www.greenschool.org](http://www.greenschool.org) 혹은 [www.mepantiganbali.com](http://www.mepantiganbali.com) 참조.

"Throw down to the ground" is the translation of Bali's latest cultural attraction, Mepantigan, which is performed across Bali but best enjoyed at Green School, 15 minutes outside Ubud in central Bali. Putu Witsen Widjaya created this emerging art form by integrating judo, taekwondo, Brazilian capoeira, Korean self-defense, Balinese folklore and shadow puppetry with mud wrestling. The idea for an entirely new cultural attraction on an island already rich in artistic expression came to the former taekwondo champion who wanted, as he explains, "for people to know about the three

harmonies between man and man, god and nature." Early variations took place on the beach with dancers lathered in coconut oil but "we were too slippery to throw one another so mud works much better." The mud pit venue wherein dancers quickly get covered in the stuff allows Putu Witsen to emphasize the environment, which is also at the core of the philosophy of its host, an elementary to high school constructed entirely of bamboo and mud where students write on recycled paper. Music played by a traditional Balinese ensemble known as the *gamelan* gets louder as dancers begin fire eating and dance like Balinese shadow puppets behind a makeshift scrim before jumping back in the mud to turn each other upside down while simultaneously acting out a classic Balinese love story. ([www.greenschool.org](http://www.greenschool.org); +62 361 469 875 and [www.mepantiganbali.com](http://www.mepantiganbali.com))

